

9. 선 장 면

[82] 다 실 기

선장면 군덕리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한 마을에 최생원이 살았는데 그는 재산은 풍족하고 인품이 너그러우며 집안도 화목하여 살기에 불편이 없었다 한다. 그러나 최생원은 걱정거리가 있었다. 사 대독자인 그각 40이 넘었는데도 대를 이를 아들은커녕 안고 어를 딸조차도 없는 것이었다. 그의 부인 유씨도 그것이 걱정되어 새벽마다 불공을 올리기 벌써 3년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은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상한 것이 이 마을 최생원만 손이 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손이 많아 다복하다는 소리를 듣던 집안의 사람들도 이 마을에 이사온 뒤부터는 대를 잇기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도 살림걱정보다는 자식보는 것이 더 큰 걱정이었어서 삼신 할머니께 지성을 드린다. 신령께 제를 올린다. 등 정성을 The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의 터줏대감격인 최생원가문에서 손이 귀한 것은 지세탓인지도 몰랐다. 차츰 최생원집은 웃음이 없어졌다. 급기야는 유씨 부인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최생원은 자신이 복이 없음을 한탄하며 술에 빠져들게 되었다. 집안은 이렇게 일그러져 가고 있었으나 유씨 부인은 아픈중에도 새벽 불공을 잊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던 유씨부인은 대문밖에서 목탁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 계집동도 심부름을 보낸터라 유씨 부인은 손수 쌀을 퍼들고 나갔다. 대문밖에는 스님이 걱정스런 안색으로 목탁치기를 멈추고 서 있었다. 유씨 부인이 쌀 되를 건네자 합장과 함께 스님은 "허어- 거참 큰일이로고"하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유씨부인이 급히 그를 제지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스님은 난색을 표했으나 병색이 짙은 부인의 끈질긴 추궁에 못이겨 말을 했다. 최생원이 사는 이 마을은 원래 "다실기" 즉 열매가 맺은 듯 자손이 번창할 곳이었으나 최생원 집터에 천년묵은 지네가 들어간 이후로는 그 독기로 인해 자식 볼 운세가 가리워졌으니 땅을 파고 그 지네를 잡으면 될 것이되 다만 그 지네를 죽이지 않으면 더 큰 독을 내어 이웃마을에까지 피해를 볼 것이니까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얘기였다. 유씨부인은 그 스님께 감사하고는 달려 들어가 취해서 잠든 최생원을 깨웠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최생원은 눈이 커졌다. 당장 술이 깨는 기분이었다. 급히 마을 장정들을 -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모아놓고 자식 귀한 연유를 알린 후 집을 헐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잡기 위해 자기집을 헐겠다는 최생원의 말에 감복하여 너도 나도 집을 허 후 새집을 짓는데 도와 주겠다고 언약을 했다.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과연 천년묵은 지네는 엄청나게 커서 스며나오는 독기는 다실기 운을 누를 만했다. 완전히 죽이고자 하여 불을 피워 태우기를 몇시간 하여 또 그 뼈를 갈아 재와 뽕가루를 함께 넣은 후 부처님 상옆에 두었다. 그렇게 하여야 부처님의 기운으로 해를 못 끼친다는 것이 스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최진사의 새로 더 크게 지어졌고 그 뒤 마을에는 경사가 겹쳤다. 아들 쌍둥이요, 딸이요.... 이집 저집 모두 손을 본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마을에는 손이 크게 번창하였고 자연 마을 이름도 다실기로 바뀌 었으며 유씨부인과 최생원 그 스님을 기리기 위해 탑을 쌓았다. 허나 그 탑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이 모두 지네를 잡은 덕이 아닌지..... 아들 자식이 그리고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83] 된 고 지

선장면 돈포리에 된고지라는 높은 돈 대가곳을 이룬 곳이 있다. 이조때의 일이다. 임금이 김 복선이라는 사람을 시켜 민정을 살피도록 했다. 어느 마을이 인심이 좋은가 어느 마을이 효부효자가 많은가를 알기 위해서 였다. 과객의 행세로 이곳 저곳을 살피던 김복선은 그런 대로 편안히 지낼 수 있었다. 모두 인심이 후했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는 무척 피곤해서 어느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자 한 머슴이 나왔다. "이곳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시오" 그 말에 머슴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보슈, 이 마을에선 묵지 않게 줄을거유" "아니 이렇게 늦었는데 어떻게 한단말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강이 있으니 거기서 나룻배를 타시구료 그 강만 건너면 다른 마을이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도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는 머슴에게 사정사정하여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허술한 사랑방으로 안내를 받은 그는 머슴의 말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기름이 아까와선지 불도 켜지 않고 저녁상이라고 주는 것이 콩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였다. 다 떨어진 이불을 덮고 자며 그

는 투덜거렸다. " 아니 이런 기와집에서 이러한 대접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이튿날 새벽 그 집을 떠나며 머슴에게 넌즈시 물어 보았다. " 이 마을사람 모두 콩보리밥에 간장 한 종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예" 그것이 우리 마을 사람의 밥상과 똑같은 걸유 머슴의 말에 그는 가우뚱했다. 잘된 농사를 보면 못사는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곳은 부자가 많이 살다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은 잘 먹으면서 나그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 싶어 껄스민 마음이 들었다. " 임금께 알려 혼내주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다음마을을 가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나룻배를 탄후 그는 자기연초가 물에 젖어 뱃사공에게 " 여보 사공 내 연초는 물에 젖어서 그러니 연초 한 대만 빌립시다." 한즉 사공의 말이 가관이였다. " 나는 물에 젖은 연초도 없으니 손님이 연초를 내게 좀 주시오" 그 말에 그는 참으로 "된곳(욕심장이가 많이 사는곳)이구나"하고 탄식했다. 그가 배에서 내린 곳이 선장돈포리로 이곳에 된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민정을 살핀 후 그는 임금께 나가 제일먼저 이곳에 대해 아뢰었다. " 다른 곳은 인심이 모두 후했으나 단 한곳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소상히 들은 임금님은 진노해 당장 그 마을 원님을 부르라 하셨다. 그러나 그 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병사가 들어와 오랑캐가 쳐들어 왔음을 알렸다. 뜻밖의 전보에 임금님과 대신들은 모두 놀랐다. 그때 또한 사람의 대신이 들어와 알렸다. 어느 마을에서 군량미로 많은 쌀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임금님과 대신들은 다시 놀라며 착한 백성들의 마음에 기운을 얻었다. 오랑캐는 작은 무리였다. 어렵지 않게 그들을 물리친후 임금은 큰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군량미를 보낸 마을 덕이니라" 흐뭇한 마음으로 그 마을 대표를 부르셨다. 그 때 임금곁에 서 있던 김복선이 깜짝놀라 소리쳤다.

" 아니 된곳에서 내가 묵었던 집 주인이 아닌가" 그 사람이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그때는 죄송했습니다. 허나 모든 것이 나라일을 걱정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 비록 나그네에게 대접은 소홀하나 그것이 나라의 보탬이 되니 어찌 나쁜일이라 하겠습니까?"

임금님과 김복선은 그 말에 감복하여 그 마을에 후한 상을 내렸다 한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나그네에 대한 대접은 여전해서 된곳이라는 이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변하여 지금은 " 된고지"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 비록 나그네에게 소홀하고 음식은 변변치 않게 먹는 사람들이지만 애국하는 거기에는 마음이 숙연해 진다.

[84] 부 영 산

선장면 신동리에 자리잡고 있는 부영산은 지금은 낮은 산으로 됐지만 옛날엔 무척 높고 험준했다 한다. 인적도 무척 드문 곳인데 어떤 적=은이가 사랑했던 애인이 부모의 억압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실의에 빠져 속세를 떠나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젊은이는 자연광더불어 살며 언제나 단소를 불었다. 젊은이의 단소 소리는 아랫마을에 들려 동네사람들은 귀신소리라고 하며 이산에 가기를 무척 꺼렸다. 그러던 어느날 단소를 불고 있는데 산 기슭에서 머리를 풀고 소복한 여인이 나무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아련히 보였다. 젊은이는 단소를 던지고 달려가 여인을 끌어 내렸다. 순간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자기의 전 애인이었다. 여인은 이미 정신을 잃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심장은 조금씩 조금씩 뛰고 있었다. 젊은이는 여인을 웅달쌔므로 데리고가 찬물찜질도 하고 약썩도 뺀아 그 즙을 입에 흘려 넣어주며 온갖 정성을 다 했으나 여인은 야속하게 깨어 날줄을 몰랐다. 궁리 끝에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넣어주었으나 마찬가지였다. 어둠은 밀려오는데 청년은 여인의 머리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몇 년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애절하게 죽어가니 애간장이 녹아 내리듯 여인의 얼굴로 한방울 한방울 흘러 내리는 눈물은 청년의 슬픔을 말해주는 듯 했다. 깊은 밤이 되었으나 여인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젊은이는 슬퍼히며 여인을 정성스럽게 묻어 주었다. 그 무덤에선 한 마리의 부영이가 솟아 올랐다. 이때부터 이산엔 부영새가 많이 날아오고 밤이 되면 부영새가 무척이나 울었다 한다. 그 젊은이의 뒷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도 죽어서 부영이가 되었으리라는 추측뿐이다. 다만 부영산에 얽힌 슬픈 사연만이 전해오고 있다.

선장면 대흥리라는 곳에 일찍 아내를 여의고 어린 딸 홍장과 사는 원랑이라는 홀아비가 살고 있었다. 홍장의 아버지는 앞을 못보는 장님이었다. 어느날 홍장의 아버지 원봉사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던 중에 길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흥법사 화주승으로 이름은 성공이라 하였다. 성공은 "여보시오. 당신과 한가지 큰 인연을 맺고자하니 나를 위해 시주나 하시기 바라오." 했다. 원봉사는 깜짝 놀라 "예... 고마운 말씀이오나 소인은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 "내가 어제 시주책을 받았는데 어제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오" 어떤 꿈이었습니까? 내일 아침 봉사 한 분을 만날텐데 그 분이 돈을 많이 시주할 사람이니 그리 알라 원봉사는 한 끼의 밥도 빌어먹는 신세인데 시주할 큰 돈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가슴만 태웠다. 한동안 생각을 하던 원봉사는 성공대사와 같이 자기집으로 돌아와 딸 홍장을 성공대사에게 바쳤다. "네몸을 바쳐서 좋은 법당짓는 것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벗게 될 것이다." 홍장은 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붙잡고 흐느꼈다. 아버지가 없으면 뒷바라진 누가 합니까? 지금 가면 볼 수 없을텐데 어이 떠납니까?

성공대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원봉사와 홍장은 서로 껴안고 울며 서로 떨어질 줄을 몰랐다. 홍장은 대살르 따라 멀리가는 길에 소랑포 언덕에 이르러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쪽 하늘을 보았다. 저멀리 바다 저쪽에서 붉은 배 두척이 저어오고 있었다. "무슨 배일까?" 배는 삼시간에 바다의 언덕에 대는데 중국 사신의 배라 배에 탄 사람들은 황금관을 쓰고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배에서 홍장을 바라보고 있던 중국 사신들은 홍장에게 다가와 "이제서야 황후를 만나뵙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꾸짖듯이 말했다. "예. 우리는 진나라 사람이온데 영강정유년 5월 신유일에 천자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뒤로부터 임금님께서 슬퍼하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새 왕후는 동국에 있으니 모셔오소서"하셨다 하십니다. 명을 받들고 근심하던 끝에 여기와서 뵙는 것입니다. 홍장은 뜻밖에 너무 놀라 꿈을 꾸고 있나 의심하였다. 마침내 보배를 풀어서 성공대사에게 주고 홍장은 중국으로 갔다. 황후가 된 홍장은 마노탑3천을 만들어 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무려 5백 위를 만들어 배 세척에 실어 홍장의 나라로 보내어 감로사에 모시게 하고 황자를 시켜 탑을 만들어 금강사에 봉안하고 장님인 아버지를 생각하여 탑을 만들어 고향의 흥법사에 모시게 하였다. 또 자기의 소원을 비는 부처관음상을 만들어 배에 실으면서 "어디든지 가다가 배달는 곳에서 인연을 맺으소서" 그리하여 배는 낙안 땅 단교 근처에 이르렀다. 이튿날 전남 곡선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 성덕아가씨가 우연히 바닷가에 나갔다가 배에 아무것도 없고 금으로 만든 관음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관음상을 등에 얹고 거기를 떠나니 그 불상이 가벼웠다. 걸어가 뒷산을 오르자니까 차차로 금상이 무겁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여기에 다 내려모시고 절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성덕아가씨는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 절을 지으니 이것이 관음사였다. 금은보화를 얻은 성공대사는 그것을 가지고 흥법사를 다시 지었다. 어느날 봉사는 우연히 마음이 기뻐 뜰앞에 내려섰더니 뜰앞의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사람의 그림자가 눈에 보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요 분명히 눈을 뜬 현실이었다. 원봉사는 기쁨중에서도 슬펐다. "홍장아 너의 축복이리라. 홍장은 더 큰 축복을 받고 있으리라 " 원봉사는 광명한 빛을 보며 잘살고 홍장도 황후의 귀한 몸으로 잘 살았다고 한다. 고대소설 심청전에서 볼 수 있는 부모님을 향한 효심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일이다. 홍장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성공법사를 따라가다가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진나라의 황후가 되었다. 곧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하는 글귀가 떠오른다.